



Peace BAR Festival

제43회 유엔 세계평화의 날 기념식
미원평화상 제정

인류의 미래, 지구 행성의 미래

희망의 활로를 찾아서

2024

2024년 9월 20일(금)

경희학원

경희학원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 경희학원의 운영 기조입니다. 설립 정신 “문화세계의 창조”와 “학문과 평화”의 전통 위에 더 나은 인류의 미래, 문명의 미래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학원 산하에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의료원(경희의료원, 강동경희대학교병원), 경희사이버대학교, 경희고등학교, 경희여자고등학교, 경희중학교, 경희여자중학교, 경희초등학교, 경희유치원이 있습니다.

취지

인류의 미래, 지구 행성의 미래

희망의 활로를 찾아서

인류사회는 전환기에 처해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해야 할 역사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문명의 진전과 함께 편익한 삶이 가능해졌지만, 이와 함께 찾아온 이례적인 지구적 도전 과제는 미래를 가능할 수 없는 불안의 정조(情調)를 키웁니다. 지구 행성의 기후 체계는 지구 생명 공동체의 실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혼돈의 국제정세는 핵전쟁 위험마저 높이고 있습니다. 전래하는 지구적 차원의 폭력과 갈등, 기아와 질병, 불평등과 같은 지구사회의 난제와 함께 기후·핵 재앙의 가능성은 오늘의 인류사회가 풀어야 할 전환적 과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례적인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천재일우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세계 시민 사회의 위기의식이 깊어질수록 전환의 동력은 커질 수 있습니다. 과거를 성찰하고, 미래를 예찰해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는 일은 우리 모두의 과업입니다.

경희학원은 세계평화의 날 PBF 기념식과 함께 미원평화상 첫 수상자를 발표합니다. 이 상은 평화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경희의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가 희망의 활로를 열어가는 공론의 장이 되길 희망합니다.

세계평화의 날 제정 배경

세계평화의 날과 해는 1981년 유엔이 제정하면서 정례화됐다. 1981년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개최된 세계 대학총장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University Presidents, IAUP) 제6차 총회에서 경희의 설립자가 유엔이 세계평화의 날과 해를 제정하도록 제안하자고 발의했다. IAUP는 이 같은 내용의 코스타리카 결의문을 채택해 유엔에 전달했고, 유엔은 그해 11월 30일 개최된 제36차 유엔총회에서 세계평화의 날과 해(International Day of Peace, International Year of Peace)를 제정했다.

당시 유엔총회 결의문(Resolution 36/67)에는 세계평화의 날은 “모든 국가와 시민이 평화의 이상(理想)을 기념하고, 고양하고자” 제정했고, “모든 유엔 회원국, 산하기관과 기구, 지역기구, NGO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유엔과의 협력하에, 특히 교육적 수단을 통해 세계평화의 날의 의미를 되새길 것”을 권유한다고 쓰여 있다. 유엔은 매년 9월 셋째 화요일을 ‘세계평화의 날’(2001년부터 매년 9월 21일)로, 1986년을 ‘세계평화의 해’로 제정했다.

냉전체제 완화가 인류 평화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IAUP의 생각은 시의적절했다. 세계평화의 날과 해를 제안할 무렵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던 동서 양 진영은 세계평화의 해가 공표되면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1986년 1월 1일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신년 평화 메시지(New Year's Messages of President Reagan and General Secretary Gorbachev, January 1, 1986)를 교환하면서 평화 분위기가 조성됐다. 양국이 추진해 오던 군축회담도 진행하면서 인류는 평화의 길로 들어섰다. 이후 핵무기 감축안이 마련되고 지역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면서 냉전체제의 긴장이 완화됐다.

미원평화상 제정 배경

미원평화상은 2024년 경희학원이 제정했다. 경희국제재단이 2022년 제안하면서 제정 논의를 본격화했다. 경희학원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경희국제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미원평화상 제정을 위한 법적·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경희학원 2024년 신년교례회에서 미원평화상 제정을 공표했다. 이를 기반으로 경희학원은 수상자 추천과 선정을 위해 학술과 실천 영역에서 지구적 기여가 뚜렷한 인사와 기관을 위촉해 추천위원회와 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 미원평화상은 2년마다 수여한다. 추천위원회의 후보 추천과 선정위원회의 선정 과정을 거쳐 경희학원 이사회가 수상자를 심의·의결한다.

미원평화상은 본상 트로피 '평화의 지구'와 부상으로 '세계 평화 후원금'을 지급한다. 이 후원금은 미원평화상 후원재단의 성금으로 조성한다. 경희국제재단은 2022년 11월 설립자 미원 조영식 박사 탄신 101주년 기념행사 자리에서 미원평화상 후원재단 창립총회를 열고 미원평화상 후원기금을 모금했다. 2023년 경희국제재단이 주관하는 미원평화상 후원재단(Miwon Peace Prize Foundation, Inc.)이 미국 내 비영리 법인으로 공식 출범했다.

경희학원은 “지구사회가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갈 ‘문화세계의 창조’를 필생의 과업으로 삼았던 미원(美源) 조영식 박사의 업적을 기리고자” 이 상을 제정했다. “더 나은 인간 실존의 조건, 문명과 평화의 미래를 위해 헌신해 온” 인사 또는 단체에 시상한다고 명시했다. 그 배경에는 문명의 발전과 함께 깊어지는 실존적 위기가 “인간과 세계, 문명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을 이어가는 “의식과 실천의 지도”를 요청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미원평화상 선정위원회

미원평화상 선정위원회는 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피추천자를 심의해 수상 후보자를 선정한다. 경희학원 이사회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결정한다.



선정위원장 이리나 보코바

前 UNESCO 사무총장

Irina Bokova,
Former Director-General
of UNESCO(2009-2017)



나오미 오레스케스

하버드대학교 과학사학과 석좌교수

Naomi Oreskes, Henry Charles Lea
Professor of the History of Science
at Harvard University



존 아이켄베리

프린스턴대학교 국제정치학과 석좌교수

G. John Ikenberry, Albert G. Milbank
Professor of Politics and International
Affairs at Princeton University



아비 로브

하버드대학교 천문학과 석좌교수

Avi Loeb, Frank B. Baird Jr.
Professor of Science, Department of
Astronomy at Harvard University



박영신

경희학원 고향석좌

Yong Shin Park,
Kohwang Fellow Emeritus,
Kyung Hee University System



김용학

SK텔레콤 이사회 의장, 前 연세대학교 총장

Yong-Hak Kim, Chairman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SK Telecom,
Former President of Yonsei University



송재룡

前 경희대학교 대학원장,
경희대학교 특임교수(사회학)

Francis Jae-ryong Song, Former Dean of
Graduate School, Kyung Hee University,
Professor by Special Appointment of
Sociology, Kyung Hee University

Peace BAR Festival 2024

프로그램

주제 인류의 미래, 지구 행성의 미래 – 희망의 활로를 찾아서

The Future of Humanity, The Future of Planet Earth: In Search of Our Common Hope

일시 2024년 9월 20일(금) 10:00 (세계평화주간) 2024년 9월 20일(금)~26일(목)

장소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 서울·국제 캠퍼스 일원, 실시간 웹캐스트(pbf.khu.ac.kr)

세계평화의 날 기념식 9월 20일(금) 10:00~11:20	개회	김현 경희학원 사무총장
	내빈 소개	
	경과보고 세계평화의 날 제정 미원평화상 제정	김원수 경희학원 미원평화학술원 상임고문 겸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장
	미원평화상 소개	기념 영상 “평화, 그 아름다운 원천을 찾아서”
	수상자(기관) 발표	영상 메시지 이리나 보코바 미원평화상 선정위원회 위원장
	수상자(기관) 소개	김원수 경희학원 미원평화학술원 상임고문 겸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장
	감사패 수여	경희국제재단·미원평화상 후원재단
	기념사	조인원 경희학원 이사장 “기रो에 선 인류, 전일사관의 활로”
	기념 음악	로베르트 슈만의 피아노 4중주, Op. 47(4악장) 가곡 〈I Believe〉(Eric Levi 작사·작곡)
폐회		
세계평화의 날 기념 렉처	연사	나오미 오레스케스 하버드대학교 과학사학과 석좌교수 개리 놀란 스탠퍼드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과 교수
클로퀀업 9월 20일(금) 14:00~16:00	주제	미래세대가 살아갈 그 미래를 위한 희망의 혁명
	사회	송세련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패널	김예진 경희대학교 국제학과 학생 이우진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 이정모 국립과천과학관 전 관장 이우균 한국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 KOREA) 회장

제43회 세계평화의 날 기념식 제1회 미원평화상 수상자 발표

새천년, 새로운 세기가 도래했지만, 평화는 여전히 인류가 소망해야 할 미래로 남아 있다. 학문과 평화의 여정을 시작한 경희의 설립자 미원 조영식 박사는 이런 말을 남겼다.

우리는 '지구'라는 우주선에 함께 탑승한 공동 운명체이자 인류 가족이다.
역사를 거울삼아 현명한 눈을 가져야 한다.
다시는 과거와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 미원 조영식, 『인류사회의 재건』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가난과 질병, 정치적·사회적 균열과 갈등... 최근 들어 전혀 없이 깊어지는 핵 대전과 환경·기후 위기, 인간 통제 밖 인공지능의 가능성은 평화 혹은 붕괴, 진화 혹은 절멸의 벼랑 끝에 선 인류사회가 풀어야 할 도전 과제다. 지난 시대 우리를 하나로 묶었던 '현대사회의 문명사'를 넘어 지구상 모든 존재의 평화와 공존을 향한 지구 행성 의식이 필요하다.

2024년 PBF는 제43회 유엔 세계평화의 날 기념식과 함께 제1회 미원평화상 수상자를 발표하면서 그 막을 연다.

9월 20일(금) 10:00~11:20	개회	김현 경희학원 사무총장
	내빈 소개	
	경과보고	세계평화의 날 제정 미원평화상 제정
	미원평화상 소개	기념 영상 “평화, 그 아름다운 원천을 찾아서”
	수상자(기관) 발표	영상 메시지 이리나 보코바 미원평화상 선정위원회 위원장
	수상자(기관) 소개	김원수 경희학원 미원평화학술원 상임고문 겸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장
	감사패 수여	경희국제재단·미원평화상 후원재단
	기념사	조인원 경희학원 이사장 “기로에 선 인류, 전일사관의 활로”
	기념 음악	로베르트 슈만의 피아노 4중주, Op. 47(4악장) 가곡 〈I Believe〉(Eric Levi 작사·작곡)
	폐회	

세계평화의 날 기념 렉처

희망의 활로 - 전일적 사유와 의식혁명

우주는 어디에서 시작돼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가? 문명의 진보는 계속되는가? 이 근원적인 물음에 궁극적 설명이란 없다. 심오한 설명은 더 많은 새로운 질문으로 이어진다. 하나의 관점, 하나의 이론으로 충분치 않다.

지난 세기, 과학혁명이 세계를 이끌었다. 시공간의 압축 속에서 지구촌을 무대로 하나의 인류 의식이 태동했다. 그러나 21세기 인류사회는 여전히, 아니 전례 없는 문명사적 복합 위기를 건너고 있다. 기후, 핵, 비인간 지능과 같은 새로운 문제 틀을 형성했다. 과거의 사유 방식으로는 인지할 수도, 인식하기도 어려운 지구적 실존의 위기는 이미 우리 곁에 다가왔다. 과학과 철학의 경계 너머를 향한 더 큰 물음이 제기되는 이유다.

세계평화의 날 기념 렉처를 통해 문명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위한 희망의 조건을 탐색할 예정이다. 지구적 난제와 과학에 관한 성찰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갈 의식과 사유의 지평을 논의한다.

※ 미원평화상 시상식 일정 등을 감안해 일정 추후 확정

연사

나오미 오레스케스 Naomi Oreskes

하버드대학교 과학사학과 석좌교수

(The Henry Charles Lea Professor of the History of Science at Harvard University)

개리 놀란 Garry P. Nolan

스탠퍼드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과 교수

(The Rachford and Carlota A. Harris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Pathology at Stanford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콜로퀴엄

지구시민으로 가는 길

위기의 미래 사회에 대응할 새로운 전환 기획이 절실하다. 경제적 풍요와 함께 인류사회의 평화를 지향해 온 지구사회, 지구 공동체의 실존적 위기의 긴급성이라는 도전 앞에서 새로운 방향 전환이 요청되고 있다. 지구의 모든 존재가 조화를 이루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 지구시민은 무엇을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일까. 새로운 미래를 향한 비전과 실천 기획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본다.

9월 20일(금) 14:00~16:00	주제	미래세대가 살아갈 그 미래를 위한 희망의 혁명
	사회	송세련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패널	김예진 경희대학교 국제학과 학생
		이우진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
		이정모 국립과천과학관 전 관장
이우균 한국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 KOREA) 회장		

세계평화주간 행사

미원평화상 제정 기념 숏폼 공모전

경희학원 병설기관 경희여자중학교, 경희중학교, 경희여자고등학교, 경희고등학교 4개 학교가 참여하는 미래세대의 디지털 숏폼(short-form) 공모전을 전개한다. 경희 평화운동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미원평화상 제정 의미를 미래세대의 시선으로 조명하는 행사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품을 미원평화상 시상식(11월) 기간에 시상한다.

일시	2024년 9월~11월
주제	전환의 시대, 미래세대가 생각하는 평화의 의미
대상	국내외 청소년
주관	경희학원 병설기관

UNAI ASPIRE 경희 평화 포럼

9/24 화
17:00~20:30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하여 국내 대학생 및 관련 인사들을 초청하여 평화를 위한 실천 대안 및 의견을 교환하는 공론의 장을 개최한다. UNAI ASPIRE(United Nations Academic Impact, Action by Students to Promote Innovation and Reform Education)는 대학생들의 학술적, 실천적 역량을 통하여 조금씩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학술 교류 활동, 봉사활동, 캠페인 및 옹호 사업 등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해 왔다. UNAI ASPIRE Kyung Hee는 매년 Peace BAR Forum을 통해 Peace BAR Festival의 핵심 주제를 발전시켜 다양한 사람들이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장소	서울캠퍼스 청운관 619호
주제	미래도시: 도시는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는가
대상	UNAI ASPIRE 회원 학생 및 일반 학생
주관	UNAI ASPIRE Kyung Hee, UNAI ASPIRE KOREA

지구시민부스

9/24(화)~25(수)
10:30~16:30

세계평화를 소망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세계시민 활동 체험, 전파 그리고 행동하는 시민이 될 것을 다짐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한다.

- 장소 서울캠퍼스 청운관 앞마당, 네오르네상스 앞마당
주제 지구시민으로 가는 길
대상 경희 구성원 및 일반인
참여기관 대외 굿네이버스(Good Neighbors), 유엔한국학생협회(UNSA-ROK), 밀알복지재단
교내 서울 후마니타스칼리지 대학생위원회, 글로벌봉사팀 학생기획단, UNAI ASPIRE 경희지부
주관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경희대학교의료원 의과학문명원

세계평화의 날 기념 “제10회 후마니타스 글쓰기의 날” 백일장

10/30(수)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하여 경희대학교 학생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글쓰기 축제를 통해 후마니타스 글쓰기 교육의 성과를 공유하고, 학습자와 교수자들이 하나가 되는 후마니타스 글쓰기 공동체를 구현한다.

- 장소 멀티미디어관 112호
대상 경희 구성원, 일반시민
주관 후마니타스칼리지 글쓰기센터(서울캠퍼스)

Peace BAR 시네마 & 토크 콘서트

지구 문명의 전환에 대한 고민과 지구 생태계를 포괄하는 지구 공동체의 평화를 추구하고 이를 위해 중동과 동유럽에서 전개되고 있는 전쟁을 돌아보는 계기로 우리 자신의 문제인 한반도의 평화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영화상영회를 개최한다.

시네마 영화상영회

- 일시 2024년 9월 23일(월)~26일(목)
장소 국제캠퍼스 멀티미디어교육관 후마라운지

토크 콘서트

- 일시 2024년 9월 24일(화) 15:00
장소 국제캠퍼스 멀티미디어교육관 후마라운지
주제 기억 없는 우리의 전쟁
대상 경희 구성원, 일반시민
주관 국제 후마니타스칼리지

PBF 2024 경희 평화운동 사진전

경희 평화운동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Peace BAR Festival의 의미를 조명하는 기회를 마련한다. 대학의 사회적 책임 수행에 관해 성찰하고 공유할 수 있는 사진 기획전이다.

일시	2024년 9월 20일, 23일, 24일
장소	서울캠퍼스 중앙로(교시탑~중앙도서관 입구)
주제	경희 평화운동의 역사
대상	경희 구성원, 일반시민
주관	경희기록관

기후 평화 실천 캠페인

지구의 날을 기념해 공모한 '기후 위기 대처 실천 아이디어'를 전 구성원이 동참하는 실천 캠페인으로 이어가고자 한다. 세계평화의 날과 미원평화상 제정을 '기후 위기가 곧 인류의 생명과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로 삼으려는 캠페인이다.

일시	2024년 9월 21일(토)~11월 30일(토)
주제	생활 속 기후 위기 대처를 위한 '디지털 데이터 클린업 캠페인'
대상	경희사이버대학교 구성원
주관	경희사이버대학교 미래문명원

연혁

경희대학교는 1981년 경희의 제안으로 제36차 유엔총회에서 제정된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해 1982년부터 매년 9월 세계평화의 날에 즈음해 Peace BAR Festival을 개최해 왔습니다. 올해로 43회를 맞는 기념행사의 연도별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982~1990

- 1982 현대사회의 위기와 국제평화
- 1983 세계평화: 그것은 가능한가
- 1984 UN을 통한 세계평화
- 1985 UN: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1986 국제분쟁의 원인과 해결 방안 모색
- 1987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1980년대 후반의 한반도
- 1988 동북아 시대와 21세기의 한국, 중국, 일본의 역할
- 1989 동서 갈등을 넘어선 평화: 1990년대 동북아의 안위와 세계평화
- 1990 동서 관계의 변화와 평화로운 신국제질서의 모색

1991~2000

- 1991 신국제질서: 21세기 탈이데올로기의 세계
- 1992 21세기의 민주주의와 신국제질서
- 1993 동북아시아의 평화: 지역협력을 향하여
- 1994 도덕과 인간성 회복
- 1995 관용, 도덕과 인간성 회복
- 1996 21세기, 세계공동체를 향한 평화전략과 UN의 역할
- 1997 21세기의 비전과 현실: 동아시아의 역할
- 1998 새로운 천년을 향한 인류의 비전: 현대문명을 넘어서
- 1999 21세기, 평화는 가능한가
- 2000 21세기의 글로벌 거버넌스

2001~2010

- 2001 문명 간 대화를 통한 지구공동사회의 건설
- 2002 Pax UN을 통한 지구공동사회의 건설
- 2003 네오르네상스를 통한 지구공동사회의 건설
- 2004 평화를 위한 긴급 과제: 테러리즘의 극복
- 2005 이념 이후의 시대: 21세기 대안문명을 말한다
- 2006 21세기 보편의 재발견: 자유와 평등을 넘어서
- 2007 전환적 도전: 새로운 인성과 공동체를 찾아서
- 2008 미래문명, 미래대학: 지식과 실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서
- 2009 경희 평화 워크숍
- 2010 몸과 문명: 나는 몸이다

2011~2020

- 2011 몸과 재양: 문명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서
- 2012 인간, 정치, 문명
- 2013 문명과 고등교육: 큰 배움을 찾아서
- 2014 우주의 인간, 인간의 공적 실천
- 2015 함께할 우리의 가치, 그 가능성의 미래
- 2016 지구문명의 미래: 실존혁명을 향하여
- 2017 전환의 시대: 촛불과 평화의 미래
- 2018 전환문명 시대의 한반도: 그 가치와 철학
- 2019 미래세대에게 미래는 있는가?
- 2020 긴급성의 시대, 정치 규범의 새 지평

2021~

- 2021 전환 문명의 전위,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 2022 평화 혹은 붕괴, 지구정치의 새 지평을 찾아서
- 2023 평화 혹은 붕괴, 변곡점에 선 지구사회
- 2024 인류의 미래, 지구 행성의 미래 - 희망의 활로를 찾아서

T O W A R D S G L O B A L E M I N E N C E



경희학원

미원평화학술원,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경희사이버대학교 미래문명원, 경희대학교의료원 의과학문명원